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오월광주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다시 찾아온 5월, 그날의 뜻과 송고한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5·18 민주광장, 금남로 일원 등에서 펼쳐진다.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행사는 오월광주가 오월에서 통일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담았다.

먼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남로 일대 차 없는 거리에서는 시민난장이 펼쳐진다. 난장부스 등이 개설되고 거리공연, 기획전시 등이 열려 분위기를 돋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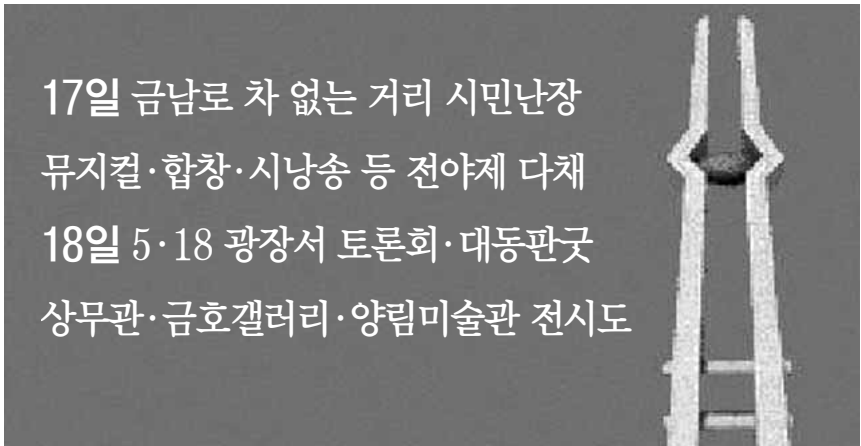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월풍물굿이 진행된다. 오월풍물단 518명이 참여해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본무대 등 금남로 일대에서 행진을 펼치며 풍물굿을 선보인다.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 청소년과 학생, 정당 및 기관이 참여하며 이후 본무대에 합류하면 전야제가 펼쳐진다.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전야제가 열린다.

1부 ‘모두의 오월’과 2부 ‘보아라 오월의 진실’, 3부 ‘불어라 평화의 바람’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전야제는 퍼포먼스, 뮤지컬, 평화의 노래, 시낭송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1부에서는 시민 배우 200여 명과 전문 배우가 함께 1980년 5월 당시 열사들과 10일간의 항쟁을 재연하며 죽은 자와 산자를 매개하는 영매의 ‘망월의 춤’을 선보인다. 또 잠비나이 공연과 아울러 광주 출정가 5월의 노래를 뮤지컬로 선보인다.

2부에서는 전일빌딩을 매개로 한 퍼포먼스와 함께 오월 어머니의 ‘술아 술아 푸



17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시민난장
뮤지컬·합창·시낭송 등 전야제 다채
18일 5·18 광장서 토론회·대동판굿
상무관·금호갤러리·양림미술관 전시도

른 술아’ 합창이 준비돼 있다. 이어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정자 여사와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증언무대가 마련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광주지역의 가수들과 합창단들이 등장해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한다.

18일 당일에는 광장 토론회, 풍물패 길놀이, 외국인 시민합창단 공연, 오월대동판굿 등이 열려 시민과 함께하는 5·18 38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정영창 화백은 27일까지 상무관에서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상무관프로

젝트로 선보이는 이번 주제는 ‘검은 하늘, 검은 기억’.

정 화백은 지난해 메이플 5월의 작가로 선정된 뒤 올해도 광주를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작품은 작업실이 있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제작해 현재 부산항으로 싣고 오고 있다. 광주에는 다음주 월요일 정도 도착 예정이다.

“5·18 참상은 그림, 글로 표현하기 불가능합니다. 고민한 끝에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8.5m 2.5m 크기는 처음인데 작품이 설치되는 상무관은 가장 아픈 공간이죠. 슬프고 아프고 그리움, 통

곡의 장소이지요. 작품을 설치해 상무관을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에 맞게끔 추상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화백은 쌀을 사용한 이유는 씨앗이자 생명이고 소우주를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쌀알로 영령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12~24일)에서는 광주민족미술협회 ‘오월’전을, 양림미술관에서는 5·18 민중항쟁 38주년 기념 ‘바람의 길’전을 연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이달 말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 및 망월 묘역에서 ‘광주오월문학축전 시·산문경개시화전’을 개최한다. 또한 광주전남청년연대(19~20일)는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청년문화제와 5·18 청년순례를 진행한다.

이밖에 광주지역 각 구청에서도 ‘5·18 기억박스’, ‘5월 주먹밥 나눔과 부채만들기’, ‘5·18 역사탐방’, ‘5·18과 광주사진전’, ‘5월을 잇다 대학생 한마당’, ‘5월 광주를 그리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062-352-0518~051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나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진행된 제37주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늪지 않는 클래식 열정 ‘금호 시니어 콘서트’

3~4일 금호아트홀

유·스퀘어가 3일~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2회 ‘금호 시니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금호 시니어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와 만 40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지나해 10월, 1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5월과 9월에 걸쳐 두 번의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틀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는 성악, 클래식 기타, 현악앙상블 부문에서 모두 13개 팀, 25명의 연주자가 독주와 합주 형태의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3일에는 테너 김우진, 소프라노 김종례, 테너 장흥식, 소프라노 정경숙, 테너 박진영, HYMN 스트링 앙상블 등이 출연한다.

4일 공연에는 테너 신양수, 소프라노 김선미, 기타 유용상, NCC 앙상블, 바리톤 임동운, 바리톤 고광덕, 테너 봉필수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제1회 ‘금호 시니어 콘서트’ 공연 모습.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 윤용하의 ‘고독’,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반니’ 중 ‘만일 원하신다면’, 김동

진의 ‘내 마음’, 임금수의 ‘그대 창 밖에 서’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360-84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3~4월에 핀 꽃들이 지고 앞들이 새로 돌아오는 시기로 녹음이 짙어지며 자연의 왕성한 활동과 열매를 맺기 위한 수정 활동이 이뤄지는 때이기도 하다. 5월은 1년 12달 중 생동감이 절정에 달하는 달이다.

필자가 유학했던 독일은 자주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 많았다. 특히 독일의 겨울은 매우 길어 일년 중 여러 달이 회색빛으로 지루하지만, 오월이 되면 들뜬 꽃들이 일제히 피어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파란 하늘빛과 함께 길고 지루한 겨울을 보상받으려는 사람들로 공원과 거리가 활기에 넘친다.

그래서인지 5월을 예찬하는 문학작품이 많고, 아름다운 봄날을 노래하는 음악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중 첫 곡으로 하이네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아름다운 5월’은 오월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이 계절에 자주



김선철
작가

듣더라도 그 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현했다.

초창기 우리 가곡이나 이태리 가곡이 피아노가 멜로디를 보조하는 가곡이란 장르에 속한다면, 슈베르트를 시작으로 슈만과 브람스, 나아가 후고 볼프와 연결되는 독일 가곡을 예술가곡이라 부른다.

가사가 있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의 내용을 얼마나 잘 청중들에게 전달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한민국 ‘애국가’의 가사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온라인상에서 가끔 이 내용이 거론되고 있어

5월 예찬

연주되는 가곡이다.

이 시에서 ‘아름다운 5월’이라고 번역된 ‘wunderschönen’이라는 독일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가 아니라 무엇인가 가슴이 뛰고 온 몸의 신경이 깨어나는 듯, 에너지가 분출하는 정서적 기분을 지니고 있어 우리말로로는 제대로 옮기기 힘들다고 한다. 노래와 함께 하는 피아노 부분은 사랑의 번민을 마침내 그녀에게 고백하는 가슴의 고동을 전하듯 멋지고, 오월의 향기로움이 묻어난다.

‘아름다운 5월에/꽃 봉우리에 꽃이 피어날 적에/나의 마음속에도/사랑의 꽃이 피어났네//’

아름다운 5월에/새들이 모두 노래할 때에/나는 그 사람에게 고백했네/초조한 마음과 소원을(하이네 시 ‘아름다운 5월에’)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열여섯개의 가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으로 예술가곡이라고 부른다.

예술가곡은 19세기 초 낭만시대에 들어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음악사조로 그 전 유행하던 가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곡은 멜로디 중심으로, 피아노는 멜로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술가곡은 피아노가 단순히 멜로디의 보조가 아닌 곡 전체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피아노 부분만

흥미롭다.

서양음악이 들어온 초창기 작곡가들은 서양음악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가곡을 만들었다.

이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서양음악과 우리 음악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언어구조상 우리 언어는 강박에서 시작해 약박으로 끝나는데, 반대로 서양 언어들은 약박에서 시작해 강박으로 끝난다.

가곡뿐만 아니라 대중가요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은 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멜로디에 가사를 붙이는 듯한 노래들은 엄격히 말하자면 잘못된 노래다. 찬송가에 나오는 대부분 노래 역시 반안 성가들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고 생각하는 트로트가 가장 우리 언어 구조와 잘 맞아 떨어지는 음악이라는 것은 흥미롭다.

신록의 계절 5월을 예찬하는 시를 읽으며, 내년 이맘 때 ‘5월 예찬’을 주제로 예술가곡 발표회를 기획하고자 생각해보는.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버스킹’ 남한 문화로 자리잡다

- 지역 축제, 버스킹으로 매력 충전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4월 개막
- ‘힐링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커 사랑 그란 영화

5·18 기획

계속 불려야 할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예향이 만난 이사람
‘신형 잠수함’ KIA타이거즈 꽃미남 사이드암, 박정수

전시 리뷰

<호남의 현악 작가들 II>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합동전시

노중흔의 꿈의 여행

운명적인 사랑과 맛있는 음식의 도시
미국 시애틀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북 로맨스’ 커플이 운영하는
영국 프림로즈힐 북스 & 커나한 북스

예향 초대석

『이순신의 7년』 완간한 작가 정찬주

“인간이순신” 숨결 담았어요

문화 화제

윤곽 드러낸 2018광주비엔날레

트렌드 따라잡기

돌맹이 키워볼래요? 진화하는 혼자 놀기

지역의 문화 행사

눈부신 전남의 5월 축제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지향과 선택
소설가 권터 그라스 vs. 극작가 하이너 뮐러

해당수신부 공동 기획-한국의 국가여행
소박함과 화려함의 남해안권 국가여행들

전통, 역사와 마주하는 전남도지사

나주 羅州

황포돛대 타고 시간 여행
목사관 오월의 푸르름 속으로